

January 04 죄의 근원 살피기

• 마태복음 15:16-20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근원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 이야기말로 사람을 더럽게”(마 15:18)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깊이 뿌리박혀 잘 뽑히지 않는 죄, 너무 깊이 있어 잘 드러나지 않는 죄’를 가리켜 ‘고정된 죄성’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흔들어 행위뿐 아니라 감정과 생각, 영적인 차원까지 낱낱이 보게 하십니다.

죄의 근원인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피상적인 회개만 하게 됩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죄도 회개도 반복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죄들을 알아차리고 잘라 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칠죄종’(七罪宗)에 관해 가르쳐 왔습니다. 근원이 되는 죄 7가지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심, 탐식, 정욕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죄인 줄 모르거나 죄지은 줄 모른 채 살게 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보았습니다(사 6:7).

그리고 죄를 깨달음으로써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를 가리켜 성 암브로시우스는 ‘복된 죄’(felix culpa)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시 139:23-24).

나는 성령으로 모든 죄를 살피며 깨닫고 있습니까?

- ❶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 복됨을 깨닫습니까?
- ❷ 행위뿐 아니라 죄의 근원까지 깨닫게 하시길 간구합니까?